

도,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5년간 2104억 투입해 의약·헬스케어·펫푸드·복지 등 4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축이 전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총 2,104억원 규모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펫코노미’ 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단순한 동물사랑을 넘어 바이오·헬스케어·펫푸드·복지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산업전 주기를 포괄하는 4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전북자치도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핵심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혁신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동물용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총 200억 원 규모의 2개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에는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 인수공통 유전자원 보존센터, 동물벤처 헬스타운 등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연구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등 6개 과제에 총 1,095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정읍시는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이점을 살려 총 600억 원 규모의 3개 과제를 추진하며,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반려동물에 도입해 질병을 사전 감지하고, 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을 연관기업, 지역대학 및 진료기관과 연계해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익산, 임실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헬스케어·의료관광 모델을 개발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개 과제에 총 18억원이 투입된다.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기능성을 갖춘 펫푸드 소재 개발에 주력한다.

정읍을 중심으로 농생명연구기관과 협력해 친환경·고기능성 펫푸드 소재를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플랫폼까지 일원화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사료 시장을 겨냥한 이 사업에는 8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 농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은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유실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에 동물보호센터 5개소를 새로 건립하며, 이와 함께 민간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하는 등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2개 과제에 총 99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2개 과제에 총 12억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4대 전략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감성 기반 산업을 넘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이 산업의 선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위한 ‘2026~2030년 청사진 그린다’

도,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착수… 농식품·관광 중심 과제 발굴

균형발전 위한 비전·전략 마련… 지역 맞춤형 개발 모색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2025년 제1회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열고, 제3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과 2024년 추진사업 실적평가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시동을 걸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식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는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식품, 관광, 경제, 복지 등 다방면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전북 동부권 발전계획(‘26년~’30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가 진행됐다. 연구책임자는 농식품·관광·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동부권민의 성장 전략과 신규사업 발굴을 제시하며, 향후 5개년(2026년~2030년)의 발전비전과 추진전략의 큰 틀을 제안했다.

또한, ‘2024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동부권 발전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 사업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적평가 대상은 총 20개 사업으로, 시군별로는 △남원 2건 △진안 5건 △무주 4건 △장수 4건 △임실 2건 △순창 3건이다.

이 중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관련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전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의 마지막 해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2025년 제1회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열고, 제3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과 2024년 추진사업 실적평가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시동을 걸었다.

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내 최고 스포츠 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 6개월간 수행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하계올림픽의 전북 전주 유치를 목표로 유치 여건분석과 대회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중심

으로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 연구 및 분석 전문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을 맡았으며,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그간 다수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분석과 정책수립을 주도해 온 만큼, 전북 올림픽 유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대 올림픽 개최 사례 분석’, ‘전북의 유치 환경 및 인프라 분석’, ‘시민 여론 및 경쟁도시 동향조사’, ‘정책 및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 분석’ 등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기존 경기장 활용방안과 정책적 타당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여론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

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방도시 간 연대 전략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분산형 대회 운영을 통해 과도한 인프라 투자 없이도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모델 마련… 17~19일 국제심포지엄

고창 상하늬원 파머스빌리지·고창갯벌 일원서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늬원 파머스빌리지와 고창갯벌 일원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CEPA 계획 수립과 방문자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2021년 세계유산으로 등

재된 한국의 갯벌의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제기구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NGO 등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간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CEPA 사례 공유를 비롯해, 한국의 유

산지역별 전략 발표, 해외 방문자센터 운영 사례, 전문가 종합토론, 고창갯벌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WWF(세계자연기금)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의 CEPA 전략과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18일에는 국내 5개 유산지

역(서천군, 고창군, 순천시, 보성군, 신안군)의 실행계획 발표와 함께, 중국·독일·영국 등에서 운영 중인 방문자센터의 사례가 소개된다. 19일에는 고창갯벌 탐방이 예정돼 있으며,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갯벌, 죽도탐조 등 생태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최첨단 암 진단장비 ‘PET-CT’ 도입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35억원 투입해 최첨단 정밀 진단

전북대학교병원이 암 진단의 핵심 장비인 ‘PET-CT’를 최신 모델로 교체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의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사업에 공모했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 결과를 통해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12억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자부담 20억원을 포함해 총 35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PET-CT를 최신형 모델로 교체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감성 기반 산업을 넘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이 산업의 선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이 한 단계 향상되어 전북지역 암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병원은 신규 장비의 도입이 완료되면 공공의료 기반 확대 및 지역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의료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암 진료 접근성이 낮은 도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연계 및 진료비 감면 등 공공의료 확대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연준 암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전북지역암센터는 암과 관련된 검진, 진료, 치료, 수술, 입원, 재활, 연구 등 모든 영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여성가족부·도청과 함께 사전 간담회 진행

성인지 관점·모니터링 활동 역량강화 교육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원장 정정희)는 10일 재단에서 ‘2025 전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사전 간담회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은 2022년부터 운영되어 도민들이 직접 도내 시설과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문화·관광 온라인 홍보물을 중심으로 성차별적 표현과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 간담회는 ‘우리의 시선, 지역의 변화 - 함께하는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주제로 진행,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임현정 센터장이 사회를 맡았다.

간담회에는 조민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금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 공경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정책팀장이 참석해 도민의 활동



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니터링단원 40인이 참여해 2024년 활동 경험과 소감을 나누고,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적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 후에는 2025년 모니터링단원 21명의 위촉식이 이어졌다.

또한 1차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차로 홍보물 분석 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반을 다졌다.

정정희 원장은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고취될지 바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의회 임사회 개최… 7일간 의사일정 돌입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0일 제303회 임사회를 개최하고,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노년의 경험, 일자리로 꽃피우다’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과 세대통합형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고, 황혜숙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를 통해 방화산 조성 등의 산림관리와 스마트 산불 감지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으며, 이상길 의원은 ‘파크골프 열풍, 정읍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를 통해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확대 조성 등의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서향경 의원은 ‘특화공원 조성 및 기존 공원 재정비를 제안하며’를 통해 하천 정비를 통한 생활체육 특화

공원 조성과 이용률이 낮은 공원의 공간 재구성을 강조했다며, 김석환 의원은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명칭을 도입하자!’를 통해 정읍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역사적 의미의 명칭을 공공체육시설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과 송기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정동시장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채택했다.

이번 임사회회의 주요 일정은 11일부터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과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9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사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은=김대환 기자

군산시의회 임사회 폐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4회 임사회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이번 임사회는 현장방문 실시 및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했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시의회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상호관계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편법을 조정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